

녹내장 치료 핵심은 ‘안압 조절’…MIGS 치료 효과적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건강 바로 알기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이태희

보리안과병원 원장

녹내장은 고령층이나 중장년층 이상에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이다. 지속해서 진행되는 시신경병증으로, 주로 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 결손, 시력 저하 등의 시력 장애를 일으킨다. 녹내장에 의해 완전히 실명할 경우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넘어 불빛마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치료와 수술=녹내장의 핵심치료 목표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다. 환자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다. 보통 1차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는데 약물 치료만으로도 안압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녹내장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질병이 계속 진행되는 불응성 환자들은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녹내장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방법은 섬유주 절제술이다. 50년이 넘는 고전적인 수술방법으로 흰자위(결막과 공막)를 절개하고 들어가 막힌 섬유주의 일부를 잘라내어 방수가 전방내에서 결막 아래 공간으로 배출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 수술이 끝나면는 위쪽 흰자위(결막)에 여과포

안압 상승하면서 시신경 손상 시력 저하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 약물·레이저 효과 없으면 MIGS 합병증·부작용 적고 회복 빨라

라고 불리는 물주머니가 만들어지게 되고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 이 부분이 체크밸브로 작동해 안압 조절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절개범위가 넓어 수술이 까다롭고 수술시간이 길며 절제술 후 수술부위의 섬유화가 빨라 재발될 안압 재상승 위험이 높다.

그래서 절개를 최소화하고 안압하강효과도 좋으면서 재발과 합병증위험이 낮은 수술방법에 대한 연구가 과거부터 이어져 왔고, 그 결과 몇 가지 수술방법이 녹내장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minimal invasive glaucoma surgery, MIGS)이라고 일컫는다.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빠른 수술과 빠른 회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과 부작용이 적고 수술 후 경과도 좋다. MIGS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방법으로 ‘젠 삽입술’과 ‘아이 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젠(Xen)은 45마이크로미터의 내경과 6mm 길이를 가지고 있고 생체친화적인 젤라틴 성분으로 제작되어 있어 특별한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주

사기를 사용하여 전방과 결막하 공간에 위치시키게 된다. 이로써 높은 안압의 원인이 되는 안구 내 액체(방수)가 눈 위쪽 부분의 흰자 결막 아래로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안압을 낮추게 된다. 안압하강효과가 안정적이고 국소마취로 시행할 수 있다. 고전적인 섬유주절제술보다 절개부위가 작고 수술시간이 짧아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발생빈도도 낮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평균 30% 정도의 안압하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행 받은 환자의 절반정도에서 추가적인 녹내장약제의 사용 없이 원하는 목표안압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이 스텐트(iStent)의 경우 최근 2세대 아이 스텐트를 사용하며 인체 내 사용되는 의료재료 중 가장 작은 크기로 길이가 360마이크로미터, 폭이 230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아, 말 그대로 최소 침습녹내장 수술이라 할 수 있겠다. 중앙부 통로를 통해 방수는 스텐트 내부로 들어간 후, 끝 부분에 있는 4개의 구멍을 통해 실렘관으로 흘러가게 된다. 수술은 특수하게 제작된 주사기를 통해 2개의 스텐트를 섬유주에 간격을 두고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섬유주절제술과 달리 여과포를 만들지 않고 안구 내의 자연적 방수유출 경로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초기부터 중등도의 녹내장에 사용할 수 있고 수술시간이 짧으며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의 빈도 또한 고전적인 수술에 비해 매우 낮다.

녹내장수술법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보리안과병원 이태희 원장이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중에 있다. 고전적인 섬유주절제술이 개복술이라고 한다면 MIGS는 미세 복강경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떠한 녹내장 수술을 택할 것인가는 경험 있는 녹내장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 결정이 필요하다.

녹내장은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약물치

료와 레이저 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수술치료를 시행받게 되는데, 이때 수술은 안압 조절을 위한 수단이지 안압 하강을 위한 옵션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혁신적 채용시스템으로 인턴 정원 채웠다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타대학 교수 면접·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타대학 출신 비율 2배 이상 급증...레지던트 채용도 늘어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2년 연속 인턴 정원을 모두 채운 것은 물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외과 레지던트 채용도 늘어 광주·전남지역 의료인력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2023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 정원은 94명을 모두 채웠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81명 정원에 69명을 뽑아 85%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순천성가톨릭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등 3곳의 파견병원(자병원)에도 인턴을 모두 보낼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일부 대형 병원들도 인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병원이 인턴 정원을 2년 연속 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 레지던트의 경우 전국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외과 모두 합격자가 나왔다. 산부인과는 5명(정원 5명), 소아청소년과는 2명(정원 4명),

흉부외과 2명(정원 3명), 외과 2명(정원 5명)을 뽑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지난해보다 정원을 2명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이같이 전남대병원 전공의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필수외과의 의료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턴은 지난 2020년(75명)에 비해 무려 19명이 증가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명을 뽑았으며, 흉부외과도 지난해보다 1명이 늘어난 2명을 채용하는 등 기피과로 분류됐던 필수외과도 예년에 비해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 채용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은 물론 채용 과정에서 기존 틀을 과감하게 깨고 혁신적인 채용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가장 컸다.

지난 2021년 레지던트 채용 면접 때부터 국립대

병원 중 최초로 면접위원 중 절반을 타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위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2주마다 평가하는 인턴 성적을 전산화하는 등 성적 처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뿐만아니라 전남대병원 교육수련실에서 수시로 전공의들과 간담회, 개개인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소통한 결과 최신식 스터디카페 및 휴게실이 갖춰진 전공의 당직실을 추가로 조성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엔 11.5%에 불과했던 인턴의 타대학 출신 비율이 ▲2022년 24.2% ▲2023년 25.3%로 두 배 이상 경증 뛰었다. 전공의 채용시스템이 바뀌자 광주지역은 물론 서울 및 부산, 강릉 등 전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한 것이다.

전남대병원 주재군 교육수련실장은 "2년 전부터 채용시스템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바꾼 결과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레지던트 공정 채용 보장이 곧 인턴 지원 급증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진료과의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부부가 함께 한방으로 난임치료 하세요”

광주시, 난임부부 100명에 3개월간 약제비·검사비 지원

광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을 지원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광주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광주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3개월간 약제비(1인 최대 120만원)와 혈액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100명이다. 여성의 경우 197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한방난임치료 기간에는 보조 생식술을 받을 수 없다. 올해는 더 많은 난임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앞당겨 2월부터 대상자

를 접수받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한의사회(062-223-9481)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의사회는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는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광주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38곳)에서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을 받게 된다.

송혜자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돈돈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